

특별기고 **한국인의 맛 ③**

우리 조상들은 靑·紅·黃 원색과 백색 선호

(2)색의 맛
우리나라 사람은 청·홍·황(靑·紅·黃)의 원색과 푸른색(靑)·붉은색(紅)·노란색(黃)을 좋아했다. 그 중에도 청(靑)·홍색을 더욱 좋아했던 것 같다. 신라에 훈인을 칭하는 남해(南海)로 쓰이는 청실 홍실을 비롯해서 대궐이나 절 또는 큰 기와집 등의 단청(丹靑)과 채색에도 그랬다. 이것을 잘 입증하는 것이 단청(丹靑)이라는 용어다. 그리고 우리 방치레의 하나인 보료도 청·홍색으로 돼 있고 옛날 여인들의 옷에서도 청의 청상(靑衣裳)이 많았다.

무엇보다도 이것이 단적으로 잘 나타난 것이 태극기의 무늬다. 그러나 이 둘은 한국의 전통적인 색이라 할 만하다. 대표적 특징을 가진 이 두 색은 항상 짝이 함께 쓰여서 조화를 이루고 있다. 일반적으로 홍은 양이나 남성, 청은 음이나 여성을 상징한다. 음양의 상징이 태극기의 예이며, 남녀의 상징이 남해의 청실 홍실 예다. 그러나 이 두 색은 이 밖에 또 다른 의미를 가지고 쓰였다. 청이 평화를 상징하면서 소극적이고 겸허하면서 현묘하며 은근한 느낌을 주는가 하면 홍은 투지적이고 적극적이고 정열적이면서 발랄하며 화려한 느낌을 준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 쓰인 홍은 눈부신 빨간 색이 아니라 은근한 느낌을 주는 훈색(靑色)이었다.

그런데 청·홍 중에도 청이 기본 바탕이었다. 여인들의 옷이나 보료 등에서 청은 바탕색이고 홍은 그를 조화시키기 위한 것이었다. 그러나 우리 민족의 전통적인 색은 청이라 하겠다. 우리 민족이 이러한 청색을 좋아하는 것은 평화를 사랑하고 겸

허하며 은근한 우리의 심성을 잘 대변한다고 본다. 그러나 우리 민족은 특별한 경우(칭자나 칭기와) 외에는 청색 하나만을 쓰는 우거를 범하지 않았다. 청을 쓰는 곳에 반드시 홍을 대조시키고 있다. 대조와 파격에 의한 조화라 하고나 할까?

그러면 홍은 어떠한 심미미를 대변하는가? 홍은 어디까지나 청과의 조화를 위해 쓰였기 때문에 청색에 의해 본래의 특징이 약화되어 투지적이고 정열적이고 화려한 느낌보다는 강한 의지력을 나타낸다. 이른바 단심(丹心)이라고나 할까? 그 예가 바로 포은의 단심요, 춘향과 소월의 단심이며, 아리랑에 나타난 우리 민족의 단심인 것이다. 이것을 일러 한국인의 '끈기'라고 할까? 청색의 바탕위에 홍색의 첨가는 겉으로 보기에 소극적이고 부드러운데 어리간 겸허한 듯하나 좌절하지 않는 한국인의 강한 의지력에 담겨 있는 것이다.

그러나 좀더 화려하게 나타낼 때는 청·홍색에 황색(靑色)이 추가되어 쓰인다. 그 예가 바로 부채와 대문의 무늬나 색동 저고리 등이다. 황색은 해나 황금과 영원 불멸을 상징하는 색깔로 밝고 명랑하며 가벼우면서 화려한 느낌을 준다. 그 중에도 대표적 특징이 화려함이다. 그러하여 입금의 곤룡포(중홍 이후)와 신부의 옷이나 저고리도 단청 등이 많이 쓰였다.

그러나 우리 민족이 많이 써 온 색이 청·홍·황 삼색이나 그 중에도 대표적인 전통색은 청이다. 이 청색이 가장 아름답게 나타난 것이 고려청자다. 고려청자의 예미는 선도 뛰어난 것만 색 또한 뛰어난 데 있다. 청자의 색은 마치 비가 갠

인 후의 먼 산마루 위에 비치는 맑으면서도 아련하고 우아한 하늘빛(牛後靑天靑)과 같다.

그것은 우리 조상들의 낭만과 심미미이며 그 심미미는 우리 민족의 조화롭고 평화로우며 은근한 기품의 발현이다. 입의 생각이 깊어 집어 있는 여인네같이 고요한 아름다움, 맑고 깨끗하나 그윽하고 다소곳한 겸허는 화려한 푸른색을 내뿜는 중국의 칭자(靑緞)와는 완전히 구별되는 백색(靑色)으로, 이는 한국인의 은근한 정서를 잘 반영한 우아미의 결정체다. 이 청색이랄로 한국 하늘의 빛이며 불교의 영감을 받아 재비되고 사색적인 고려 사대부들의 선(禪)적인 심성의 투영이다.

이 밖에 우리 민족은 백색을 좋아해서 백의민족이라는 별명까지 가지고 있다. 백색은 흑색과 대조되는 것으로 청·홍·황색의 색료(色料)가 합쳐지면 흑색이 되는데 반해 이 삼색의 색료(色料)의 총화는 백색이라고 한다. 그러나 이색은 무한한 기승을 상징하는 색이기도 하다. 그러하여 백색을 일러 모든 색의 조종요모라 하기도 한다.

이러한 백색은 소박하고 담담하며 깨끗하고 밝으며 그윽하고 겸허하며 평화롭고 원숙한 느낌을 준다. 즉 화려하지 않으나 초라하지도 않으며, 중후하지 않으나 겸박하지도 않고 명랑하지 않으나 감성적이지도 않으며 맑은 듯하면서도 정다운 무인 다정의 정취와 은근한 맛을 느끼게 한다. 청색에 비해 보다 넓고 깊고 소박하고 은근한 색이라 하겠다.

이러한 백색의 결정체가 이조 선조 백



정동화 박사
前 제경포천시민회장

자다. 이조 백자의 백색은 고려인의 자비롭고 감성적인 선(禪)적 심성이 투영된 고려청자의 비색(靑色)에 비해 보다 한층 세련되고 원숙된 우아한 색이다. 조선조 백자의 색은 그저 밝고 깨끗한 평면적 색이 아니라 으름날 달빛을 보는 듯이 불수록 그윽하고 유려하며 폭 넓은 맛을 느끼게 한다. 그리하여 이조 백자는 언제 어느 곳 어떤 가구 위에 놓아도 잘 어울린다. 이러한 백자는 유교의 영향에 의한 질박 강인(質樸剛毅)한 조선조의 시민적 의지의 결정체라고 본다.

백색은 여인네 모시옷에서도 잘 나타나고 있다. 화장한 여름날 짧은 모시 적삼과 길고도 평평하게 늘어진 모시 치마를 입은 여인이 유난히 깨끗한 머리에 기름을 발라 단정하게 빗어 남아갈 듯 쪽을 낀 위에 파르르름한 옥비녀를 꽂고 걷는 땀시는 시원하면서도 조졸하고 깨끗하면서도 소박하며 산뜻하면서도 잠잠한 은근하고 우아한 맛을 느끼게 하는 한국 특유의 맛이기도 하다.

이와 같은 흰색을 좋아함도 조선조의 '한(恨)'이 승화되어 표현된 은근하고 소박한 심성의 반영이라고 본다. 그러면서 그윽하고 유려한 '빛'은 한(恨)을 승화시킨 의지력인 '가'의 발현인도 있어서는 안 될 것이다.

이와 같이 한국 사람이 청·홍·황색의 원색을 좋아하고 그 중에도 청색을 더 좋아했으며, 그 위에 백색을 좋아함은 한국인의 회화를 사랑하는 마음과 소박하고 은근한 가운데 끈기가 있는 심미미를 잘 나타낸 결과라고 본다.

특별기고 **생태도시의 조건 ①**

물의 생태학에 흐르는 심미적 효과에 대한 사유



공명수 교수
대전대학교 영문학과

물은 자연환경과의 유기적 관계 속에서 "흐러야 그 물에 힘과 활기가 생기고, 그 물의 맛도 달라지며, 농작물의 경작에도 이롭다"는 그 자체의 영묘한 생태학을 지니고 있다.

또한, 물은 졸졸 흐르는 시냇물에서 거센 폭포처럼 울려 퍼지는 바다에 이르기까지 신비스러운 심미적 효과의 기호를 내포하고 있다.

그런데 물은 졸졸 흐르는 시냇물에서 거센 폭포처럼 울려 퍼지는 바다에 이르기까지 신비스러운 심미적 효과의 기호를 내포하고 있다. 그 중에서도 흐르는 맑은 물이 주변 공간과의 유기적 관계 속에서 만들어지는 안락한 조화는 물의 생태학에 흐르는 최고의 신비일 것이다.

물은 보는 사람들의 눈에 제멋대로 흐르는 것 같고, 그 모양이 무정형으로 보일 수가 있다. 그러나, 어느 시냇물에서도 찾을 수 있는 소용돌이의 파장은 '8'자 모양의 흐름을 이루고 있다. 이 자연스럽게 만들어 내는 '8'자 모양의 형태로 인해 물은 계속 움직이는 듯한 시각적 착시를 일으키고 있다. 물의 소용돌이 파장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교대로 이어지는 회전에서 이루어지고, 동시에 옆에서 옆으로 움직이는 '8'자 모양의 무늬를 만든다.

물의 신비를 연구한 데오도 슈웬크는 리드미컬한 물의 움직임은 변화하는 조류나 부서지는 파도와 같은 다른 여러 형태의 물에서도 찾을 수 있다고 하였다. 슈웬크는 물의 흐름에는 그 나름대로의 정교한 형태를 지니고 있다고 말한다.

그는 흐르는 물과 관련하여, "물은 계속해서 본래의 구형(球形)으로 되돌아가려는 속성을 지니고 있다"고 말한다. 구불구불 흐르는 시냇물이든, 굽이치는 파도든, 하늘에서 떨어지는 빗방울이든, 거세게 휘몰아치는 물살이든, 물은 형태에 상관없이

모두가 구형의 속성을 지닌다는 것이다.

사실, 역사 속의 정원사들은 특정한 공간 속에 작은 폭포나 샘, 혹은 물웅덩이와 같은 자연 속에 물을 재창조하는 작업을 해 왔다. 그것의 구체적인 방법으로는 이들이 물이 제공할 수 있는 시각적, 음악적 즐거움을 느낄 수 있도록 흐르는 맑은 물을 최대한 활용하여 분수를 만들었다. 처음에 분수는 신성한 정원의 한 부분으로, 천연의 샘이 흐르는 작은 석굴로 이루어졌다. 그런 분수에 장식물이라고는 신이나 정령을 기리기 위한 석조 성상이 조각되었다.

그러나 점차로 분수에 아름다운 조각상과 같은 보다 섬세하고 미적인 표현을 덧붙이게 되면서부터 그것은 웅장한 요청의 성소로 자리잡았다. 흐르는 물과, 부딪혀 쏟아져 내리는 물이 한 곳에 어우러지면서, 분수는 삶에 지친 사람들에게 최면을 걸듯 마음의 병을 치유하는 위안을 주는 행복의 대상이 되기도 하였다.

역사적으로 보면, 페르시아인들은 열사의 사막을 낙원으로 바꾸는 과정에서 물을 적극 활용하였다. 이들은 상징적이면서도 정신적으로 다양하게 물을 활용하여 신선한 정원을 꾸민 후 그것을 예술 형태로 끌어 올렸다. 그들은 화려한 정원을 만들고, 그 정원의 한복판에는 각종 귀금속과 돌로 아로새겨진 타일을 사용하여 정교한 모양의 분수와 웅덩이를 만들었다. 이 분수가 자아내는 신비롭고 조화로운 물소리와 영묘한 물안개의 분위기는 이들에게 신비의 장소 그 자체였다. 후에 물에 대한 존중심이 유럽리 강하고 감수성이 예민했던 힌두교인들은 이러한 페르시아 양식의 분수대를 응용하여 시크교도들의 황금사원처럼 사원이나 궁전을 호수 한 가운데에 세웠다.

일본인들도 페르시아인들이나 힌두교인들 못지 않게 물의 생태학에 예민한 감수성을 뽐내었다. 본래 일본의 정원은 섬나라 특유의 해안

풍경을 본 따 만든 것이었다. 일본인들이 저마다 꾸미는 물을 이용한 정원을 조성하는 것이 아니라 자연의 형식과 지형미를 그대로 활용하는 작업이었다.

초기 일본의 정원사들은 샘물이 흘러 형성된 못이나 호수에 바위 언덕을 세우는 폭포의 심미성을 중시하였다. 본래부터 주변 풍경의 일부라는 착각이 들 정도로 이들이 만든 폭포는 자연미를 그대로 유지하여 해안의 작은 만이나 절벽을 연상시켰다. 산 속에 있는 듯이 우렁찬 소리를 내며 떨어지는 폭포에서부터 직선의 물기둥으로 떨어지는 평지의 작은 폭포에 이르기까지 폭포의 모양 또한 주변지형에 따라 제각기 다르다.

그리고 그 폭포 아래에는 자연에 대한 명상과 심신 단련을 위한 깨끗한 연못이 언제나 자리 잡고 있었다. 게다가 사람들이 명상을 하며 오랜 시간을 연못에서 보낼 수 있도록 폭포단도 설치되었다. 자연의 형태를 있는 그대로 본뜬 들계단은 정원과 연못을 연결시키는 가교역할을 하는 셈이다. 폭포라는 한 공간 속에 인간과 자연이 공존하는 심미적 효과가 창출되고 있는 것이다.

옛 선인들은 물이 차지하는 정신적인 가치에 따른 승배의식에 그 의미를 두었다면, 오늘날 현대인들은 물에 대한 경관학적 가치를 더 중시한다.

현대인들은 "자연 그 자체보다 더 아름다운 것이 없다"는 극히 표피적인 경관학적 인식에 따라, 물의 생태학에 흐르는 심미적 효과를 자신의 생활공간 속에서 직접 추구하려 한다.

삶의 스트레스와 피로감에 지친 현대인들에게 맑은 물의 조화로운 흐름만큼 삶의 위안거리가 없다는 점에서 물의 리드미컬하고 자연스런 선회의 움직임에 대한 현대인들의 심미적 욕구는 앞으로 끊임없이 이어질 것이다.

따라서, 미래의 생태도시는 이렇게 물의 생태학에 흐르는 심미적 효과를 최대한 살려야 할 것이다.

교육에세이 80

독서교육 나들이



이호연
평택초등학교 교장

정문화 시대를 살아가는데 있어서 필요충분조건은 창의력과 통찰력 및 변화의 방향에 대한 비전이다. 이러한 고등정신 기능들은 독서를 통해 길러진다. 독서의 중요성은 알지만 방법적인 면에서 특별한 프로그램이 흔하지 않은 점을 고려하여 계획적인 독서교육에 대해 살펴봄으로써 학부모나 교사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

먼저 이스라엘의 독서지도 나들이해 본다. 이스라엘은 교육 목표를 전문 인력의 양성에 두고 있다. 이스라엘의 경우 교육을 삶의 한 부분으로 여기고 생활에 꼭 필요한 것을 익히는 과정이다. 이스라엘의 의무 교육은 모두 13년이다. 학교 수업 시간은 아침 8시~12시이며, 암기 위주가 아닌 스스로 학습된 독서를 중시한다. 아침에 들고온 학생들은 학교 도서관에서 자신이 읽은 책을 3권 빌려온다. 하루 동안 3권의 책을 읽고 독서카드에 그 책의 요약문을 작성한다. 한 학기가 끝나갈 무렵 도서관 사서 선생님은 학생들 독서카드를 분류하여 학생의 관심 분야, 취미 등을 알려주고, 특정 책에 관중되거나 취약한 독서 습관을 짚어준다. 이렇게 책을 읽

으며 13년의 의무교육을 마지면 약 만 권 정도의 책을 읽게 된다고 한다. 이 정도의 책을 읽으면 다방면에 걸쳐 지식과 상식을 갖추게 된다.

이렇게 어려서부터 독서 교육에 힘을 쓴 이스라엘은 노벨상 수상자가 인구 10만 명당 1명 꼴인 150명이라고 한다. 유대인들은 아이가 자라면 매일 밤잠자리에 들기 전에 베드 사이드 스토리(Bed Side Story)를 시작한다. 아이가 고른 책을 잠들기 전까지 읽어 주는 것이다. 읽은 책은 다 읽어주고, 두꺼운 책은 중간에서만 읽어준다. 그리고 "내용이 어떻게 될지 내일 읽어 줄게"하며 책을 덮는다. 아이는 부모님이 들려준 이야기의 뒷이야기를 상상하며 잠이 든다. 아무런 방해받지 않은 시간에 창의력이 발동하는 순간이다.

또 유대인들은 아버지가 딸두드름을 직접 읽어주면서 독서에 재미를 느낄 수 있게 하려고 꿀을 한 숟가락 먹여준다. 이런 이야기들은 교육을 중시하는 유대인들의 자녀 교육관을 엿볼 수 있다. 자녀가 독서에 흥미를 느끼게 하기 위해서 부모가 평소 책 읽는 모습을 보여주고, 자녀가 어려울 때부터 독서 습관을 기르도록 노력하는 모습이다. 안데르센이 미운 오리 새끼 같은 작품을 쓸 수 있었던 데는 아버지가 들려주신 옛날이야기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한다. 안데르센의 아버지는 술주정뱅이였지만, 이야기를 아주 좋아했다고 한다. 술을 마신 날에는 밤새도록 어린 안데르센을 깨워 옛날이야기를 들려주었다고 한다. 동화작가가 된 안데르센은 어린 시절 아버지에게 들은 이야기들이 자신의 유일한 문학 수업이었다고 말하고 있다. 필자의

학교에서도 재량활동 시간을 이용하여 '애들이! 책 읽어줄 게'라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런 이른바 책 읽어줄 배움을 갖고 운영하고 있는 것이다.

다음으로 링컨의 어머니께서 독서교육을 어떻게 했는지 나들이해본다.

우리나라의 전래 동화 '콩쥐팥쥐'를 예로 들지 않더라도 계모에 대한 우리 사회의 인식은 그리 좋은 편이 아니다. 하지만 링컨의 계모는 우리의 편견이 그야말로 편견이라는 것을 일깨워 준다. 링컨은 어려서 어머니가 돌아가신 계모 슬하에서 자랐다. 링컨이 8살이 되던 해 집안이 가난해서 더 이상 학교에 다닐 수가 없었다. 그런 아들을 위해 계모는 이웃 동네 부잣집에 가서 그 집 아이가 읽는 책을 무려 5년 동안이나 빌려다 주었다고 한다. 어린 링컨은 그런 어머니 덕에 독서광이 될 수 있었고 이런 그의 습관은 그가 대통령이 되어서까지 지속되었다. 링컨의 계모가 책을 좋아하는 사람이기도 했지만, 자식의 교육에 대한 애정이 없었다면 5년 동안이나 책을 빌려다 주는 일은 상상할 수도 없을 것이다. 링컨은 자신에게 어려서부터 책 읽는 습관을 길러주신 자신의 계모에게 감사했다고 한다.

미국의 16대 대통령이었던 링컨은 그의 나이 43세 때 스토우 부인이 쓴 '봄 아저씨의 오마라시'를 읽었다. 링컨은 흑인이었던 봄 아저씨의 비참한 최후를 보고 충격을 받았고, 마음이 건강하고 진실된 것 기쁨을 느끼고 있을 때 우연한 안경을 느꼈 수 있다고 한다. 독서는 인간의 정인적인 가치관을 형성해 줄뿐만 아니라 창의력, 통찰력, 변화의 방향에 대한 비전을 형성해 주는 만큼 어린 시절의 독서는 매우 중요하다.

전쟁 승리 축하파티에서 "오늘 나의 영광은 영를 톰스 캐빈을 쓴 스토우 부인의 것임이다. 나는 그녀의 책을 읽고 감동을 받아 좋은 일을 실천했음을 뽐냅니다."라고 말했다. 링컨의 경우 한 권의 책이 세상을 변화시켰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마지막으로 괴테의 어머니의 독서지도에 대하여 나들이해 본다. 괴테가 위대한 문필가로 이름을 날리자 많은 사람들이 괴테의 어머니에 대해 호기심이 시작됐다. 괴테의 어머니의 자녀 교육 방법 중 특이한 점이 하나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이야기 교육이다. 괴테의 어머니는 괴테를 잠자게 할 때 전래동화를 자장가의 리듬에 맞춰 들려주었다고 한다. 이런 어머니 덕분에 괴테는 어려서부터 풍부한 정서로 속에서 자랐다. 괴테의 어머니는 괴테가 3살이 되자 밤마다 잠들기 전에 이야기를 한 편씩 들려주면서 결말 부분은 들려주지 않고 어린 괴테에게 완성을 해 보라고 했다고 한다. 아이의 뒷부분을 상상하며 추리하고 창작하는 습관까지 기를 수 있었던 것이다. 괴테가 것처럼 위대한 문학 작품을 남길 수 있었던 데는 어머니의 이야기 교육이 바탕이 되었던 것이다.

인간의 가치관은 초등학교 시절에 3/4 정도가 결정된다고 한다. 한 권의 책은 사람의 가치관을 형성하는 데 큰 역할을 한다. 마음이 건강하고 진실된 것 기쁨을 느끼고 있을 때 우연한 안경을 느꼈 수 있다고 한다. 독서는 인간의 정인적인 가치관을 형성해 줄뿐만 아니라 창의력, 통찰력, 변화의 방향에 대한 비전을 형성해 주는 만큼 어린 시절의 독서는 매우 중요하다.

6월, 10월
새단장

공간과 생활을 아름답게 하는 **한미건축자재 백화점**

세계가 사랑하는 욕실- **아메리칸 스탠다드(American Standard)**

스페인 기술로 만든 고품격 강화마루 - **Primer**

다양한 무늬 소품 강화마루 - **다빈치**

◆ 취급품목 ◆

- 인테리어 필름
- 시트지
- 도기 타일
- 로얄스톤
- 각종 건축자재

한미건축자재 백화점
TEL. 031-871-2002

영업장, 호텔, 모텔 (전국 원경)

인테리어필름·시트지·도기타일·로얄스톤·각종건축자재

◆ 취급품목 ◆

- 인테리어 필름
- 시트지
- 도기 타일
- 로얄스톤
- 각종 건축자재

대복인테리어 하우스 (한미상재(주))

본 사 : TEL : (031)542-8818

장암영업소 : TEL : (031)871-2002